PREPARING FOR A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컨퍼런스

개 회 사

정종욱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for Unification Preparation

정 종 욱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CHUNG Chong Wook

Vice Chairperson to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Unification Preparation (PCUP)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인 정종욱 박사는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1975년)를 받고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비서관을 거쳐 1996년부터 약 2년 반 동안 주중대사로 근무했었다. 정종욱 박사는 과거 외교부, 통일원, 국방부의 자문위원과 대통령 직속 21세기 위원회 (간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겸 국립 인천대학교 정외과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2015년에는 국무총리와 함께 광복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신중국론,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Maoism and Development, Major Power and Peace in Korea 등이 있다.

Chong Wook Chung, after a brief teaching career in the United States in the mid-1970s, has for over 16 years taught at his alma ma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where he also served as Director of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In 1993, he joined the government, first as Senior Secretary for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y to President Kim Young Sam and later as Korean Ambassador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 was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Socialist Systems, senior member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for the 21st Century, and advisor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e is currently an emeritus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 distinguished professor at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 July 2014, he was appointed as Vice Chairman of Presidential Committee for Unification Preparation; President Park Geun-hye is the Chair of the Committee. Also, along with Prime Minister he co-chairs the Commission to Commemorate the 70th Anniversary of the Liberation of Korea. He has written extensively on foreign and security affairs, particularly on China-related issues. His publications include Maoism and Development, Major Powers and Peace in Korea, and Korea's Option in a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He obtained a doctorate degree in political science from Yale University in 1975.

안녕하십니까? 통일준비위원회 민간부위원장 정종욱입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제로 통일부와 함께 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님과 행사를 공동 주최 해주신 홍용표 통일부장관님, 회의를 주관해 주신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장님, 주한 대사님들, 그리고 국내외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모든 일정을 조정하면서 축사 요청에 응해주신 정의화 국회의장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내외귀빈 여러분들을 보면서 한반도 통일과 평화정착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2014년 7월 출범한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는 그동안 한반도 평화통일 위해 세 가지 임무를 중심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첫째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청사진을 만들고, 통일준비를 위한 정책개발에 매진해 왔습니다. 통일비전과 로드맵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제안된 아이디어들은 구체적으로 정책화 되어 경원선 복원 등 의미 있는 결과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가교로서 유기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셋째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를 확산했습니다. 통일은 비용이 아닌 기회이며,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와 전 세계에도 이득이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더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한반도와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어 가는데 통일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통준위는 앞으로도 통일의 미래상을 보다 구체화 시키는 한편, 온 국민이 함께하는 통일준비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지난 8월 남북한은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합의의 후속조치로서 이산가족상봉행사가 지난 달 20일부터 두 차례 개최되었으며 남북한이 합의한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고위급 당국자회담도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제6차 통준위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남북한의 동질성 확보노력을 강조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통해 교류 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당국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되는 개발협력사업들을 발굴하여 민족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 투자의 기회를 넓혀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남북 간 협력의 제도화는 한반도의 평화기반을 구축하는 일과 맞물려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정체상태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입니다.

정부는 북핵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담에서도 동북아평화협력 구축에서 북핵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미 양국 정상은 북핵문제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한반도 통일준비를 위해서는 지역 정세에 대한 통찰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입니다. 이번 회의의 첫 세션에서, 동북아 정세에 대한 전문가들의 냉철한 분석과 혜안을 통해 평화통일준비의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제분야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지정학적 중요성과 경제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은 투자와 개발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에 주변국들이 동참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북아개발은행은 지역안정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중국, 러시아, 몽골 등의 입장과도 상호보완적이며,

동북아지역의 평화로운 경제발전과 세계경제에 이바지 한다는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 모두에게도 매력적인 구상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통준위는 각 부처는 물론 민간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동북아개발은행에 대한 실익을 구체화하고 아시아투자개발은행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함으로서, 주변국들과 국제기구로부터 지지와 명분을 확보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동북아개발은행이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공조를 추구함에 있어 의미 있는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 하겠 습니다.

'북한 경제개발과 남한 및 국제사회의 지원'을 주제로 하는 제2세션의 논의가 이러한 건설적인 경제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외교안보적 노력과 경제적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남북한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작은 통일'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별히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신뢰구축을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사업들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생태,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을 중심으로 상징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사업들에 대한 지혜를 모우기를 바랍니다.

분단과 아픔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에 남북이 함께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는 일은 다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남북한의 단절되었던 소통, 화해, 협력의 연결고리를 새로이 구축하여 아픔을 치유해 나가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태와 환경의 복원을 통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완결성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평화공원의 조성을 통해 남북한의 인적교류를 도모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남북관광 벨트를 장기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담겨있습니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과 같은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방법을 앞으로 보다 다양화하고 구체화 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작은 통일의 노력이야 말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견인하는 중요한 추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드레스덴 선언에서 제안했던 모자보건 패키지 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의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보건 의료 사업 역시 통일한국의 주역이 될 미래세대와 여성의 건강 증진 차원에서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큰 틀에서 볼 때 이벤트성의 협력사업보다는 근본적이며 지속적인 개발협력의 확대로 이어져야 할 것이며, 유연성 있는 접근과 창의적인 사업의 개발을 통해 '21세기 한국형 개발협력의 패러다임'을 창조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 이번 회의는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통일부와 함께 준비한 첫 번째 국제회의로서, 일시적인 국제행사를 뛰어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통준위 위원들이 사회와 발표를 직접 담당하고, 국외연사를 토론자로 모셨다는 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통준위는 이번 회의에 참석해 주신 해외 연사분들을 포함하는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주변국가와 국제기구 등에서 참석하신 많은 전문가들께서도 해당국가와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지속적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금강산 면회소에서의 이산가족상봉행사 당시 일화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7개월간의 신혼생활 만에 헤어져야 했던 북의 남편과 남의 아내가 65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남의 아내는 이제 85세의 백발의 노인이 되었지만 남편을 기다리며 신혼 때 살던 집에서 아직도 살고 있었 습니다.

65년 동안 남편을 기다리며 살아온 아내가 남편에게 건넨 첫 말은 “살아있어 주어 고맙다”는 것이었습니다. 65세의 아들은 북의 노인을 “아버지”라고 소리쳐 불렀습니다.

“살아있어 주어 고맙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짧은 외침이 수천만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던 것은 그 말과 행동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남북관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진정성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는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아가야 합니다.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한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역시 통일한국을 위해 시급합니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조성과 모자보건사업 등을 포함한 작은 통일의 실천도 하루 빨리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구상들을 이행함에 있어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의 노력은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우리는 대화를 통해 풀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체제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오히려 기존 9.19 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남과 북이 상호 윈윈하는 평화통일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직 열리지 않고 있는 남북한 사이의 두꺼운 문 앞에서 노크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사람도,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모두 행복할 수 있는 통일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for Unification Preparation